

능력 있는 중보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 6:18).

: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다보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서서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향한 동정심과 배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중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 동정심과 편견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 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일치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죄보다는 동정심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생동하는 중보 기도는 자기연민과 거리가 멉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에는 자신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중보 기도를 위한 것이지,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중보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 6:18)

1. 하나님을 질책하다니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중보 기도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에게 가능한 일 중 유일하게 '합정'이 없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서 계신다. 주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군가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필립 안시가 [기도]라는 책에 중보 기도에 대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중보기도는 잔잔한 호수에 이는 파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점점 넓은 동심원을 그리며 내게서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까지 멀리멀리 퍼져 나간다.

오늘 묵상을 통해 '중보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보면, 기도의 대상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에게 그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 '연민'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해 일어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측보다 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을 향해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는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과 배려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꾸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단지 중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죄보다 무서운 동정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동정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정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 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일치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 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동정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동정심은 죄보다도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반면 ‘동정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알팍한 동정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중보 기도는 ‘자기연민’으로 인한 개인적 성향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 [100프로 응답받는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내 간구대로 상황이 나아지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도응답이다.

* 내 자식, 내 재물, 내 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 때문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다. 뭔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어도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다.

*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다.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의 영’을 주신 것은 남의 결점이 보일 때 비판이 아닌 중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게 일치될 수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온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 ❷ 누군가를 향한 연민으로 시작한 중보 기도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기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요?

묵상레시피 | 요한복음 11:1-44절 + 에베소서 6:18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6, 21절)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 32, 37절)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십니까? (41-42절)

나사로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4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4절)

나사로 이야기의 중심은 질병과 치유 혹은 죽음과 소생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핵심이다.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의 눈과 평가는 질병과 죽음, 시체와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신다(11:45-57).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21, 32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 권능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성사될 것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이해하는 신앙의 범주 내에 머물러 있었다.